

역사, 살아 숨쉬는 생생한 현재 진행형 학문

특별기고 - 역사의 의미



서상훈
문화평론가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부단한 대화’라는 말은 역사학도라면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배우는 E.H.카(Carr)의 유명한 말이다.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명 저서에 등장하는 이 말은 과거의 역사가 현재의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현재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역사’ 관련 사안들을 마주하며 살아간다. 우리는 총리가 ‘위안부 망안’을 하는 일본, 평화헌법 개정으로 이제 전쟁이 가능해진 일본을 바라본다. 이에 대해 ‘진정한 한일관계를 위해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둘러싸고 야당과 첨예한 대립 상태에 놓여 있다.

역사를 마주하며 살아가는 우리 역사속 정의로움에 열광하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추정 문제에 대해서 엄정한 모습을 보이는 것 역시 박근혜 정부의 모습이다.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데, 이것은 죄에 대한 처벌이 누구에게나 공평한 ‘정의로운 사회’를 모두가 바라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친일파의 후손이 부자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회, 하지만 독립운동가와 그 자손들은 폐휴지를 줍고 있는 사회라면 우리는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 사회인가라는 반문을 품게 된다. 그 반문의 연장선에서 우리는 〈암살〉 같은 영화를 통해 친일파를 처단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꿈꾼다. 사극과 역사소재영화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영화에 드리우는 역사속 인물들의 열정과 정의로움 덕분일 것이다.



역사란 인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역사를 통해 우리는 인간이 창조한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다. 역사의 기록을 바탕으로 시대를 통찰해내는 안목과 관점을 가질 때, 우리는 ‘역사’의 진정한 맛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사람들의 인생이 만드는 역사 이야기를 보는 관점이 중요하다

역사해석에 ‘관점’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이유는, 역사 그 자체는 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는 어떤 정해진 형태가 없으며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없다. 예컨대, 역사 속의 모든 인물은 다양한 면모를 함께 지닌다. 가령 고구려의 유명한 왕인 광개토대왕과 그의 아들 장수왕은 보통 ‘엄격’만으로 기억되지만 실은 둘 모두 때론 열정적이면서도 때론 차갑도록 냉정한 양면성을 겸비한 군주였다.

또 ‘사람들의 이야기’인 역사는 인생을 반영하기도 한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보자. 로마의 위대한 천재인 그는 재능도 뛰어났고 통찰력과 자제심, 평정심 등을 고루 겸비한 천재였다. 그러나 중국엔 그가 믿었던 측근 부르투스에게 암살당하고 만다. 누가 이 카이사르가 암살당하리라 생각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

그리고 역사는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롤 모델로서, 때로는 반면교사로서 깨달음을 주기도 한다. 역사 속에는 저마다 다양한 위치에서 저마다 다양한 목적을 향해 저마다 다양한 기질과 성격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 무수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신라 화랑세기에 나오는 미실이나 고려 말의 이인임은 욕망으로 뿔뿔 뿜쳐서 끊임없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던 삶으로, 후세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깃거리와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렇듯 생물처럼 꿈틀대는 ‘역사’

는 한 가지의 지향점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시대를 관통하는 그 지향점은 바로 ‘사람’이다. 역사 속의 많은 이야기들이, 결국은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자가 시대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대중, 특히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는 것도 이러한 리더일 것이다. 시대를 관통하는 통찰력을 지니고 그것을 제시해줄 수 있는 리더 말이다.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는 사람이 국민이 바라는 우리시대 리더

역사란 의미 있는 하나의 사실이다. 또한 ‘사람’이라는 소중한 존재 안에서 인생의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사람’은 그 자체가 바로 역사일 것이다. 그리고 역사는, 정의와 열정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항상 살아 숨쉬는 생생한 현재 진행형 학문이다.

참여마당

정현진
영어학부 2015



역사교과서 국정화, 친일·독재 미화되지 말란 법 있나

우리 부모님 세대는 5.16을 ‘혁명’이라고 배웠다. 시대가 흘러 기존 교과서가 지나치게 반공 이데올로기와 정권을 홍보한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2003년, 근현대사 교과서의 검정화를 시작으로 2011년에는 교과서 발행 체제가 완전히 검정으로 전환됐다. 나는 5.16을 ‘군사 정변’이라고 배웠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왜 국사교과서를 다시 국정화체제로 바꾸려는 것 일까.

일부에선 현행 검정 국사 교과서 대부분이 좌편향됐다고 평가한다. 교육부는 2012년 교학사와 리베르스쿨을 제외한 6개 출판사 교과서의 편향성을 지적했다. 채택률 2위의 비상교육은 전후 미군의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의 전 권한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 하에서 시행한다”는 포고문을 실었다. 반면 소련에 대해서는 “붉은 군대는 조선 인민이 자유롭게 창조적 노력에 착수할 만한 모든 조건을 지어주었다”는 포고문을 실어 소련이 긍정적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 비상교육은 교육부의 지적을 받은 후 내용은 수정하지 않고 설명을 덧붙인 후 교과서를 출판했다.

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좌편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유일한 방법인지, 또 최적의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한다. 교육부가 밝힌 대로, 국정화의 이유가 역사적 사실 오류와 이념적 편향성을 바로잡는 것이라면 검정 교과서의 틀 안에서 구체적인 집필 기준을 세우고 감·인정 과정을 엄격히 함으로써 해결할 문제이지, 국정화가 대안은 될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한 종의 교과서로는 더 큰 편향성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본디 역사는 역사를 바라보는 학자 자신의 시각과 관점에 따라 달리 해석되기에 완전한 중립은 있을 수 없다. 게다가 복수 정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객관적인 사실 기술에만 치우쳤던 제 7차 교육과정의 마지막 국정교과서는 오히려 심화 탐구와 토론을 제대로 이끌어내는데 한계를 보였다. 참된 교육은 뒷전이 되고, 역사적 사실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접할 기회조차 없었다.

역사 왜곡 가능성 역시 문제다. ‘역사교과서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은 “아직 형체도 없는 교과서를 친일 교과서라고 낙인찍는 것은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두고 기형아가 될 것이라는 저주를 퍼붓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일반국민 입장에서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현 대통령과 부친의 친일행적에 대해 논란이 있는 여당 대표가 주도하는 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현행 검정 교과서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러한 편향성을 바로잡아 학생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사명’을 완수하는데 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

▶1면에서 이어짐

황금률은 가장 쉽게 동등성 혹은 공정성의 원리로 설명되기도 한다. 혹은 타인에 대한 공감과 상상력의 원리로 설명되기도 한다. 또한 황금률은 상호 호혜성의 원리로 설명되기도 한다. 물론 여기서 호혜성은 반드시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는 식의 조건부는 아니다.

그것은 퍼트념의 말대로 “네게 그 어떤 특정한 보답을 받으리라는 기대는 전혀 하지 않고 이길 해주겠다. 어느 누군가(네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내게 무언가 해줄 것이라고 자신 있게 예측하면서”하는 식의 포괄적 호혜성이다. 우리는 어쩌면 내가 타인에게 한 행동이 결국에는 나에게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황금률을 납득하고 받아들이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작 황금률은 ‘남들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명령할 뿐, 나의 대접을 받을 타인이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는 기준도, ‘남들에게 대접받고 싶다면’이라는 조건도 붙이지



타인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황금률의 이 지나친 요구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아마도 황금률을 완성하는 마지막 원리는 ‘사랑’일 것이다.

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황금률은 칸트의 정언명령처럼 무조건적인 의무로 이해할 수도 있다. 사실 칸트에 따르면 황금률은 지나친 주관성에 의거하고 있음으로 보편법칙이 될 수 없다. ‘너’의 욕망이 저마다 다른 데,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바’를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이란 다른 어떤 사람이든, 인간을 절대 단순한 수단으로 다루지 말고 언제나 한결같이 목적으

로 다루도록 행동하라”는 칸트의 정언명령은 황금률의 또 다른 표현처럼 들린다.

하지만 황금률에는 이런 모든 원리들, 즉 공정성과 공감, 호혜성, 도덕적 의무로도 설명되지 않는 어떤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 우리는 더 나아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남에 해주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런 타인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황금률의 이 지나친 요구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아마도 황금률을 완성하는 마지막 원리는 ‘사랑’일 것이다.



한 박사 빠른 소식을 원한다면 각종 뉴스의 링크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기자들의 취재단상이 궁금하다면 제보하고 싶는데 어디다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내일의 날씨와 같은 소소한 정보까지 얻어가고 싶다면

주저말고 지금,

대학주보와 친구가 되어 주세요 SNS에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khunews@khu.ac.kr
 http://media.khu.ac.kr/khunews

경희대학교 대학주보